

바레인 침대 축구 막아라... 손흥민·황의조 쌍포 출격



황의조

아시안컵 16강 오늘밤 10시

기성용 햄스트링 부상에 벤투호 하차... 새 중원 조율사는 황인범
아시안컵 역대 1승2패... '수비축구 격파' 빠른 선제골 승부 좌우

벤투호의 중원을 조율하는 기성용(뉴캐슬)이 빠졌지만 아시안게임 '금빛 듀오' 손흥민(토트넘)-황의조(감바 오사카)의 발끝 감각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8강' 길은 여전히 희망적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2일 오후 10시 바레인과 2019 아시안컵 16강전을 펼친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왕좌 탈환에 도전하는 벤투호는 조별리그를 '3연승 무실점'으로 마치고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비록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고정했지만 중국과 3차전을 앞두고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환골탈태했다.

상승 분위기를 타던 벤투호는 20일 새로운 약재를 만났다.

햄스트링에서 회복된 줄 알았던 기성용이 20일 검진 결과 회복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대표팀에서 아예 빠지게 됐다. 이재성(울슈타인 킷)도 발가락 부상 때문에 16강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전술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벤투호는 기성용의 부재를 황인범(대전) 카드로 막고, 손흥민의 가세로 공격력을 끌어올리면서 우승을 향한 꽃길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이 16강에서 상대할 바레인은 조별리그 A조에서 1승 1무 1패를 따내 조 3위로 16강에 합류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3위인 한국은 113위의 약체인 바레인을 상대로 역대 전적에서 10승 4무 2패로 크게 앞선다. 다만 아시안컵 무대에서는 1승 2패로 뒤진다.

바레인이 최대한 수비적으로 공세를 막으면서 '침대 축구'로 시간을 끄는 작전으로 나설 공산이 큰 만큼 빠른 선제골을 잡아내는 게 승부의 핵심이다. 벤투 감독은 조별리그 때 가동한 4-2-3-1 전술을

아시안컵 바레인전 예상 선발

22일 오후 10시 아랍에미리트(UAE)
라시드 스타디움



바탕으로 바레인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불박이' 스트라이커 황의조가 최전방 원톱을 맡는 가운데 손흥민이 중국전에서처럼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설 공산이 크다.

좌우 날개는 이청용(보통)과 황희찬이 출격 태세를 마쳤다. 바레인의 수비벽을 뚫기 위해 측면 자원으로 드리블 능력이 좋은 이승우(엘라스 베로나)도 대기한다.

기성용의 부재는 황인범의 몫이다. 황인범은 사실상 프리롤로 전방을 휘젓는 손흥민과 좌우 측면에 볼을 뿌려주는 역할을 맡는다. 황인범의 짝으로는 정우영(알사드)이 나선다.

중앙 수비는 김영권(광저우)-김민재(전북) 조합이 버티는 가운데 경고누적으로 중국전에 결장한 이용(전북)이 오른쪽 풀백으로 돌아온다.

왼쪽 풀백은 공격 기습 능력과 크로스가 좋은 홍철(수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골키퍼는 김승규(빗셀 고베)가 계속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

베트남 8강행... "박항서 사랑해요" 현지 열광

요르단과 승부차기 끝 승리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0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요르단을 꺾고 8강에 진출하자 베트남이 다시 열광했다.

이날 TV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 식당과 주점, 카페 등지에 팬들이 대거 몰려 박항서호의 선전을 기원했다. 식당 등에서 설치한 스피커를 통해 경기 진행 상황이 온 동네에 전해졌다.

승부차기가 시작된 후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득점할 때는 거대한 환호성으로 인해 건물에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

겨울 정도였다.

베트남 마지막 키커가 득점에 성공하며 8강 진출을 확정 짓자 축구 팬들은 일제히 기립해 박수를 보냈고, "박항세오"(박항서의 베트남식 발음)를 외치기도 했다. 경기가 끝난 후 하노이와 호찌민 등 대도시 주요 도로는 승리를 자축하는 축구 팬들의 오토바이가 점령했다.

베트남은 2007년 대회 때도 8강에 진출한 경험이 있지만, 당시는 16개국 체제여서 조별리그만 통과하면 됐기 때문에 이번 '박항서 매직'과는 차원이 다르다.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박항서 매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사다. /연합뉴스



손흥민

"KIA 내·외야 미래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2016 동기 트리오는 주 6일 강훈... 최원준 "지난해 1군 경험 큰 원동력"
신범수 "감독님 주목 받고 싶어"... 류승현 "올 시즌 내내 출전이 목표"

KIA 타이거즈의 '2016 동기 트리오'가 세대교체의 중심을 짚는다.

'왕조 재건'을 목표로 하는 KIA의 속세 중 하나는 야수진의 세대교체다.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젊은 마운드'에 비해 야수진은 베테랑 위주로 구성됐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련함이 돋보이지만 정채된 경쟁과 기동력이 아쉬움이다.

더 미룰 수 없는 야수진 세대교체를 위해 2016입단 동기인 최원준, 류승현, 신범수 '세 친구'가 의기투합했다. 이들은 방망이 실력으로는 자타가 인정하는 당찬 신예들이다.

특히 최원준은 입단 첫해부터 1군 무대를 밟으며 187경기에 나와 경험을 쌓은 기대주다. 그는 경쟁한 선배들 틈에서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 내·외야를 오가며 강하게 크고 있다.

내야수 류승현과 포수 신범수는 지난 시즌 뒤늦게 1군에 데뷔했지만, 때 이른 타격 실력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끈 유망주다.

지난 시즌 '함께 1군에서 야구하기'라는 소원을 이룬 세 사람은 올 시즌 더 큰 목표를 향해 이를 악물었다. 세 사람은 이번 겨울 '주 6일제'로 챔피언스 필드에 출근했다. 차근차근 훈련 스케줄을 짜서 서로를 독려하며 알찬 휴식기를 보냈다.

최원준은 "지난겨울 준비가 소홀해서 결과가 잘 안 나온 것 같다. 마무리캠프에서 오자마자 운동을 시작했다"며 "비시즌에 운동 나오게 습지 않은데 셋이 뭉쳐서 하며 다 함께하게 된다. 각자 사정이 있어서 빠진 경우는 있지만 하기 싫어서 빠진 적은 없다. 서로 약속한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12월에 웨이트와 손발력, 유연성 운동으로 몸을 만든 이들은 1월 웨이트를 줄이고 타격 훈련에 나서 실전을 준비하고 있다.

아쉬움이 발판이 됐지만, 지난해 함께 1군 무대를 누볐던 좋은 기억이 강훈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최원준은 "신인 때부터 한평에서부터 (함께 1군에서 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왔다. 그 느낌을 잊고 싶지 않아서 올해 빨리 시작하고 힘들어도 각오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다"고 언급했다.

1군 경험은 신범수와 류승현에게도 꿈을 키운 희망이 됐다. 신범수는 "작년에 처음 올라와서 정신도 없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 분위기가 자제

에 적응을 못 했던 것 같다. 그런 걸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올해는 처음부터 잘하고 있다"며 "신인 때 이후 2년 만에 캠프에 가는 거라서 걱정도 되고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더 많은 경기에 나가고 싶고, 감독님의 머리 구상에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겨울에 준비 잘해서 시즌 들어갈 때 개막 엔트리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시즌 끝까지 있을 수 있는

체력도 중요하다. 정신부터 만들고 있다. 자신감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다. 지난해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계도 느끼기도 했지만 하던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다"며 "정신력"을 이야기한 류승현은 "캠프 가면 몸 안 되어 있을까 봐 두려운 게 있는데 100%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캠프보다 빨리 시즌이 왔으면 좋겠다. 작년보다 시험 많이 나와서 1주일에 6일 TV에 나오는 게 목표다"고 웃었다.

지난 시즌 실패가 '쓴 약이 됐다'는 최원준도 시즌이 기다려진다. 최원준은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못 한 것 같다. 반성하면서 배운 부분이 많다. 너무 자신감만 가지고 했다"며 "경

기 많이 나가보니까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주전이 되려면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낀 시즌이어서 뜻깊었다"고 언급했다.

또 "올 시즌에는 주전을 목표로 하겠다. 주전 선수가 되려면 144경기를 나가야 하니까 체력적인 부분에서 중요하고 부상도 조심해야 한다. 위축되지 않고 마음먹기가 중요하다"며 "마무리캠프에서 안 좋았던 부분이 잘돼서 빨리 시즌 들어가고 싶다. 감독님, 코치님이랑 타격적인 부분에 관해 이야기 많이 하면서 정답에 가까운 것을 느꼈다. 올해는 빨리 시즌이 시작되면 좋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최원준(오른쪽부터), 류승현, 신범수가 챔피언스필드 외야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